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구약신학, 5차시, 입법자로서의 신

© 2024 Tiberius Rat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5번째 세션, 입법자로서의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입법자로서의 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신약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특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율법이 어떻게 죄성과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16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우리는 단지 규정,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규제적이지만, 법은 또한 계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특히 레위기에서
자신을 거룩하다고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법은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 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죄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이스라엘을 메시아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3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곧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보호자 또는 우리의 *pedagogos* 였습니다. 또는 여기서 *pedagogue*라는
단어가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 또는 튜터 또는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육자 였으며 ,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만약 온전함이 레위 제사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면, 백성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름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론이나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말하지만 새 언약이 모세 언약보다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얼마 전 새 언약을 살펴보았고, 새 언약의 많은 약속들이 모세 언약에서 어떻게 갱신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 율법은,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차이점은 이제 성령을 통해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옛 언약에 존재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이제 새 언약에 존재하지만, 더 우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더 우월한 분입니다.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이 더 나은 희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8:6, 그러나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옛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을 얻으셨고, 그가 중재하는 언약은 더 나은 약속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율법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글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성경에 대해 인용하고 싶어하는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옛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옛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글썄요, 만약 오래된 성경이 그렇게 한다면, 율법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교리를 가르치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그리고 답은 예입니다. 율법은 디모데후서가 여기서 말한 대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의로움으로 훈련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종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유능하고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을 볼 때, 그것이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어디서 배울까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배웁니다.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매우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절과 7절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9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로 가셔서, 이는 완악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기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구절은, 글썄요, 무엇보다도 그는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의 주요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어디서 배울까요? 율법에서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썄요,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신명기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 우리는 레위기 26장에서 그분이 전능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 신명기 10장, 출애굽기 31장.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을 때, 주, 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부하시며, 천대까지 인자하심을 지키시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나,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게 삼사대까지 별하실 것이라.

하지만 교리에 관한 구약 율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적 희생인 희생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죽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 그것은 신약에서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매우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실 때, 제사 제도를 세우실 때, 그는 우리를 대신할 대체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사된 동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속죄제의 황소에게 한 것처럼 황소에게 행해야 하며, 레위기 4:20,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속죄해야 하며,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대속적 희생을 통해 가능하다. 이것의 문제점은 그것이 일시적이었고, 대제사장은 속죄일인 욕 키푸르에 매년 이것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 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실 때까지는 항상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구약, 모든 성경이 교리를 가르친다고 말할 때 옳습니다. 글썬요, 율법은 교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또한, 바울은 성경이 의로움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약에서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요, 사실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의 아들들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을 품지 말고,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그가 지상에 계실 때, 그는 레위기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의로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매일 우리의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신약의 발전은 신약의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까요? 글쎄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십계명 중 하나예요. 탐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스러운 본성이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하고, 우리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신약에서 전개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목사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사실 그것은 신약성서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는 것은 율법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이 제사, 식사 제사, 고기 제사를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은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식사 자체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저는 어떤 교회들이 이런 관점에서 운영된다는 걸 압니다. 아시다시피, 주님, 목사님을 겸손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가난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건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돌보아졌고, 바라건대 우리 교회도 그걸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티베리우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법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제가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글썄요, 하느님께서 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두셨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글썄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의로운 삶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종종, 글썄요, 아시다시피, 저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의 최악스러운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다른 강의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고, 기준을 높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산상수훈에서, 그가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이 말씀되었다는 것을 들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는 기준을 높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함을 들었고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간음하지 말라 함을 들었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음욕으로 보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너희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행하라 함을 들었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눈으로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 함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역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예를 들어 율법과 십계명은 최소한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예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아무에게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것들은 매우 달성 가능했습니다. 그것들은 최소한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 아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는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법은 천국의 문에서 아무도 당신을 기다리지 않고 문신을 확인하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문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학생들에게 그걸 말해요. 이제, 그건 그 모든 것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에 관한 한 완전히 다른 주제입니다. 저는 문신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기독교인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가서 베이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것이 지혜로운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식단 선호도에 따라 천국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신의 도덕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간통은 구약성경에서 죄였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 하에서도 간음은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식법, 시민법에 따라 구속되는 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의 규정 아래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그들 중 일부는, 글썄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어떤 이교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어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었지만, 먼저 유대인으로, 그런 다음 신자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요, 예수님과 할례가 신자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언약의 규정 아래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더 좋고 더 우월한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법은 도덕성 면에서 옛 법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후에 이것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는 것은 사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거기에 있었고, 그것은 신약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문제는 율법에 있지 율법의 정신에 있지 않다고 썼습니다. 문제는 율법의 문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이 "저는 새 언약의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논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법의 문자와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베일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으로, 같은 형상으로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앞서 그는 율법의 글자와 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로 합당하게 하셨는데, 글자가 아니라 영으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글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줍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오해하고, 오, 법의 글자를 봐, 알다시피, 없애버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썬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법의 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법의 정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좋은 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문자는 지켰지만 그 정신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그저 바리새인이 되거나 때로는 법률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법 주위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이 없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글자가 죽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율법의 글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글썬, 법의 글자를 지킨다고 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예수님에 따르면, 법의 정신도 지켜야 하거든. 마음속으로 누군가와 간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자만 지키는 게 아니야.

또한 법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의 정신은 실제로 더 깊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창조주로 대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 누군가를 살해하지 않고, 누군가의 등에 칼을 꽂지 않음으로써 법의 문자는 지킬 수 있지만, 누군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말함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죽일 수 있어. 기본적으로 문자는 지키지만 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법의 정신이 실제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이 법의 문자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법을 의미하는 단어는 토라입니다.

때로는 작은 L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L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지시일 뿐입니다. 그저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신의 백성을 위한 어떤 신성한 행동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매우,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희생과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제물에 대한 전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안식일과 축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가 한 번만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옛날에 지켰던 것처럼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의해 명령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유월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구약의 유월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백성에게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을 사용하여 신약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절기, 깨끗하고 더러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율법에 따라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의식법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법률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법의 일부 규정을 여전히 지켰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부만 지켰고, 그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일요일에는 특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구도 안 하고, 골프도 안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골프 라운드를 많이 놓쳤습니다.

하지만 슬픈 점은 제가 얼마나 법률주의적이고 어떻게 자랐는지 깨달았을 때 제가 32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켰던 또 다른 법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도, 어떤 여성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4~6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그 법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 특정 법률을 그냥 골라서 적용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의식적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다시, 유월절과 만아들의 헌신. 저는 이미 출애굽기 12장을 언급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때처럼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첫째아들, 태를 얻 자는 주님께 거룩했습니다. 글썄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아기 헌신을 하고, 그들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법의 일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 5세권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토라에 대해 말할 때, 때때로 그것은 신명기 전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구약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선지자들이 율법과 규정에 대해 말할 때 신명기를 많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신명기에 대한 광범위한 참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것을 율법, 율법의 책, 모세의 율법의 책이라고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언급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주님의 율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그 명칭은 신명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토라는 모세의 오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에스라가 에스라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의 처음 다섯 권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에 대한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에스라가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그는 신명기만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경 전체를 공부했고, 그것을 행하고 이스라엘에서 그의 법규와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번역되었고, 토라는 번역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지정하기 위한 지시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그것을 보았고, 출애굽기 12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취하고 분리하면 실제로는 두 가지 유형의 법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변증법적, 즉 판례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주로 십계명은 apodictic 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apodictic 법률은 십계명을 언급하기 때문에, 보통 2인칭으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해야 한다 또는 당신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원칙입니다. 그것들은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등등. 그래서, 일반적인 명령은 당신에게 자격을 주지 않고, 당신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명령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 지키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지 않습니다.

인과법은 보통 if, then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법률 섹션은 인과법입니다. 이들은 보통 3인칭으로 된 사례 연구입니다.

야, 만약 당신의 소가 누군가를 뿔로 들이받는다면,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만약 소가 전에 누군가를 뿔로 들이받았다면, 그럼 당신은 소를 죽여야 한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례에 근거한다.

그리고 보통, 당신은 법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때때로, 비준수에 대한 결과도 거기에 주어집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룯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너희 땅 안의 어느 성읍에서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하게 된 자가 있거든, 너희 마음을 굳게 하거나 손을 닫아 가난한 형제에게 대하지 말고, 손을 펴서 그가 무엇이든지 그의 궁핍을 위하여 넉넉히 빌려주라. 너희 마음에 합당치 못한 생각이 없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너희가 일곱째 해가 가깝다고 말하며, 너희 눈이 가난한 형제를 인색하게 바라보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러자 그는 주님께 당신을 향해 부르짖었고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기꺼이 주어야 하며, 그에게 줄 때 당신의 마음은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주 당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일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한 가지 법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모세는 모세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는 응답으로 여겼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요, 구약시대에는 믿음과 별개로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은, 우리는 앞서 다른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segula*, 즉 소중한 소유물로 지정하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의 segula , 즉 소중한 소유물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말씀이니라. 그리고 십계명의 서문,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어느 한 당사자가 의무로 인식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표현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의 일부로서, 그들은 이 법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야훼와 그의 택함받은 백성 사이의 친밀한 언약 관계 없이는 구약의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읽고, 오, 이걸 해, 이걸 하지 마.

글쎄요, 이것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으로 읽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로 읽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브레터로 읽어보세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으로 읽는 대신,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또한 그녀 자신의 축복에 대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레위기와 신명기 28장에는 명확한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은 아마도 그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만 전념한 전체 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구약 언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 유혹을 받고, "좋아요, 주님, 저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이것을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많은 은혜와 자비를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글썄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두 번째 기회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은혜 위에 주십니다.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최고이고 독특한 특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와 돌의 신을 숭배하고 나중에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나라들과의 명확한 대조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신들은 정의롭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15편은 이에 대해 말하는 핵심 시편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발을 느끼지 못하지만 걷지 못하며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것을 만드는 자는 그와 같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라. 왜? 그분이 유일하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참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언약적 사랑의 내적 성향의 외적 표현으로 인식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매우 비슷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썄요, 신을 사랑한다면, 규칙이 없고, 자유가 있다고 말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아내에게 "좋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규칙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규칙이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면 결혼 초기에 규칙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신성한 주권자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제 구약학자 크리스 라이트는 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형법, 시민법, 가족법, 종교법, 자비법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저는 법을 구분할 때, 다행히도 우리는 더 이상 시민법에 따라 살지 않는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법에는 정말 가혹한 법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을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시죠,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 아무도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다행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실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 아래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오늘 여기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가 말하는 것은 자비로운 법,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예수는 그것에 대해 말할 때 다시 레위기를 인용했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덕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될 어린 양을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법이 이해 불가능하고 달성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법이 이해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말하자면 목표를 놓쳤을 경우, 법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용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죄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성경에는 의도하지 않은 죄를 위한 제사만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실, 고의적인 죄와 의도하지 않은 죄는 모두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용서의 수단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구약 수업에서 우리에게 묻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학생들은 그 당시의 다른 법률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문신의 법칙은 오늘날 매우 유명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문신을 했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다른 신을 경배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각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문신은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알다시피, 저는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글썬요, 다음 달에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글썬요, 문신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신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영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 중 우리는 여전히 어떤 부분을 따라야 할까요? 모세의 언약은 신약 신자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 운영 기준일까요? 글썬요, 다시 한번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새 언약에서 무엇이 계속되고 무엇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 언약에 대해 말했듯이, 어떤 법은 아주 새롭고, 어떤 법은 갱신되었고, 어떤 법은 신약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식법에 대해 말했는데, 희생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간통은 신약에서 바뀌지 않아 관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화하고 불륜이라고 부르거나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간통입니다.

혼전 성관계는 오늘날의 살균된 버전입니다. 간통이라고 불리며, 여전히 죄입니다. 죄,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구약에서 죄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죄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6장은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유다서도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기준을 높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고, 구약 율법과 신자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옵션, 다섯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권주의 개혁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고든의 신권주의 비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용문, 신권정치는 모든 나라가 모세의 율법에 계시된 시민적 관행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신권정치는 단순히 성경적 윤리나 유대-기독교적 윤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시나이 언약의 윤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이 접근법에 따라 구약의 율법을 가져다가 어떤 나라의 헌법에 넣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바로 *theos*, *nomos*, 즉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의 법은 미래의 계시에 의해 폐지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이 접근 방식 하에서 도덕적으로 계속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희생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새 언약에 따라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법은 모든 현존하는 사회법 규범을 판단하는 신성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악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생, 재교육, 점진적인 법적 개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실용적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법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제 로마법과 심지어 미국의 법률 체계를 생각해보면, 그 중 일부는 성경적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면에서 우리는 성경과 법의 윤리와 도덕성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주의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법의 문자를 가질 수 있지만, 법의 정신이 거기에 없다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접근법은 개혁된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은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일의 언약,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두 가지 행정의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담고 있고, 복음은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의식법과 사법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의식법은 처음 네 계명을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재하는 맥락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법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국가로서 존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 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법법을 어떻게 다루나요? 사법법은 마지막 여섯 계명을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재하는 맥락에 적용했으며,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Willem VanGemeran 이 인용한 도덕법은 법의 종말로 작용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에서 더욱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개혁된 접근 방식과 첫 번째 경제적 접근 방식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더 미묘합니다.

트리니티 대학의 전 교수이자 현재 휘튼 대학의 교수인 더그 무가 제안한 수정된 루터교적 접근법은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으며,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사는 신자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도덕적 내용은 신약의 가르침에서 명확하게 반복될 때

신약의 신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말라기의 십일조 율법이 신약에서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전부는 희생적으로 기쁘게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삼아 항상 10% 미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진 적이 없거나 신약에서 그것이 분명히 폐지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로 읽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접근법은 경륜적 접근법으로, 여기서도 개혁적 접근법에서 연속성이 강조됩니다. 경륜적 접근법에서는 불연속성이 강조됩니다.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에 대한 조항, 예배를 위한 조항, 그리고 신권정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신권정치였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권정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 주어졌으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폐지하지 않으시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모세 율법의 목표이자 결정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주의자들은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혁 신학자들은 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접근법은 월터 카이저의 온건한 접근법입니다. 위대한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중재하고 개혁된 접근법과 경륜적 접근법 사이를 중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미래를 옹호하지만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구약과 신약 사이의 다양한 연속성 지점을 봅니다.

확실히 ,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 율법의 목표 또는 의도적인 결론입니다. 율법은 신자를 메시아에게 임명하고 그는 모세 율법의 삼중적 구분을 받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크리스 라이트는 그것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카이저는 도덕법, 시민법, 의례법의 세 가지 구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시민법이나 의례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덕법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카이저는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는 모세 율법의 도덕적 측면을 말하며, 주님께서 율법의 시민적, 의례적 측면보다 위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언약이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고 약속할 때, 특히 모세의 율법이 마음에 두어졌습니다. 다른 법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다른 법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이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추상화 사다리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우리는 다음을 언급했습니다. 왜 우리는 목사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것이 성경적 개념입니까? 그리고 답은 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끝낼 것이지만, 그것은 구약에서 시작합니다. 신명기에서, 그것은 "소가 밟을 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바울이 목사에게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말할 때 신약 상황에서 사용되고, 그는 "나는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그 원리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그 원리가 나오는데, 주는 것은 인간에게 온유함과 은혜로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상황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할 때, 당신은 항상, 글썄요, 그것은 사역이에요. 그것은 사역이에요. 마치 사역이 항상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Kaiser가 받아들이는 법률의 구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법을 세 가지 방식으로 보는 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예, 분명히, 우리는 시민법을 들을 필요가 없거나, 더 이상 시민법이나 의식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신약에서 도덕법이 바뀌는 것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도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한, 그것을 나누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전체적이고 협상 불가능한 문서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는 이겁니다. 월터 카이저의 *Toward an Old Testament Ethic, Towards Old Testament Ethics*에서 발췌한 것인데, 그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늦게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자신을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늦게 전해진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 와,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 그것들은 새로운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모세 이전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에서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네, 탐할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의 새로운 발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신약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신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유일한 것은 네 번째 율법인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약 신자들에게 율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율법은 신학적인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고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규제적이지 않더라도 계시적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죄를 벌하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읽을 때마다 구약성경의 율법이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더 이상 기능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나은 약속, 그리스도 때문에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희생을 가진 더 우월한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더 우월한 언약입니다. 저는 Doug Moore의 이 인용문을 좋아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이 법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근원이나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직접 인도됩니다.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입법자로서의 신입니다.